

문 1: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1: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경적 근거: 고린도전서 10:31; 로마서 11:36; 시편 9:2, 25, 26, 27, 28, 67:3-4, 73:24-24, 97:1, 104:34; 요한복음 17:22-24

질문 1: 이 답은 두가지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 두가지의 목적은 무엇인가?

질문 2: “영화” 또는 “영광”이란 무엇인가?

질문 3: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질문 4: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가?

질문 5: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기쁘게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질문 6: 하나님은 사람에게 왜 이런 목적을 주셨는가? (이사야 43:7)

질문 7: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분리할 수 있는가? 없다면 왜 분리할 수 없는가?

질문 8: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가를 알아보면 되는가?

질문 9: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길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질문 10: 정답은 하나의 목적을 말하는가 아니면 두개의 목적을 말하는가? 설명하라

설명:

첫 질문이 소요리 문답 중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일수도 있다. 이 질문은 크리스찬들에게 삶의 분명한 목적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모든 믿는자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들어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인생의 목적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사람으로 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피조물로 부터 오는 것도 아니다. 이 목적은 창조자로 부터 주어질 수 밖에 없다. 목적이 없는 창조는 있을 수 없다. 어떤 창조자도 목적 없는 창조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계시하셨다. 인간이 창조주의 목적을 모른다는 것은 자신을 모른다는 것과 동일하며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 첫 질문은 모든 사람으로 창조 목적을 알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의 밝고, 아름다우며, 고상함을 말한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품어내는 것을 말한다. 마치 전구에서 빛이 나오지만 그 빛과 전구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비취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이 더하거나 제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의 행위와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늘 비취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손실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완벽하여 사람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반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마치 달이 태양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과 흡사하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1)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3:23; 요한복음 17:5; 히브리서 1:3; 시편 24:10, 104:1-2; 누가복음 2:9; 마태복음 17:2; 요한계시록 21:23)

관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스러워 할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난다.” (Let the Nations Be Glad 라는 책에서, 31 쪽)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즐긴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하는 것이다. 만족하지 않고는 즐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기는 것은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을 시키면 너무도 잘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을 즐긴다는 표증이기 때문이다.

이 첫 질문의 표현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 수 있다. 이 하나의 목적이 두 가지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사람이 즐기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되시기 때문에 사람은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늘 자신이 가장 즐기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이 모든 것을 투자하여 하나님을 즐기기를 원하신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이여! 당신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인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 모습들을 한번 지적해 보기 바란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거침없이 향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라. 그 모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즐겼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벌거벗은채로 춤을 추던 모습을 생각해 보라. 그 모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즐겼던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예수께서 자진해서 갈보리로 끌려가셨던 모습을 생각해 보라. 그 모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즐겼던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팔복 (마태복음 5:1-10)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크리스천이나 비크리스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당신은 죄를 용납하지 않고 무찌르는 것을 즐겨하고 있는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는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즐겨하고 있는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당신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친교를 즐겨하고 있는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당신은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다.